감자는 다른 농작물에 비해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뿐 아니라 성장속도도 2배에서 4배 정도 빠르다. 이 때문에 옥수수, 밀, 쌀에 이어 영향력 있는 식량 작물로 꼽히지만, 역사적으로는 늘 지배층의 관심에서 벗어나있었다.

인류를 구한 위대한 씨앗 못생기고 착해서 억울한 감자의 우여곡절 드라마

감자

'화성에서의 삼시세끼'를 다룬 영화 '마션'에서 세 끼는 오로지 감자다. 화성에 홀로 남겨진 주인공 마크 와트니(맷 데이먼)는 온갖 상식과 지식을 총동원해 감자 농사를 시작하고, 561일을 버텨 지구 귀환에 성공한다. 그는 스스로를 '우주에서 재배한 무공해 감자'를 먹는 '45억 년 만의 유일한 화성인'이라고 묘사한다. 지구 밖에서의 첫 작물이 감자인 것이다. 영화를 보며 든 생각은 '아, 감자 재배를 못하는 나는 화성에 남겨지면 유서나 쓰고 앉아있겠구나'라는 것.

글 이영경

악마의 작물이라는 억울한 누명

영화처럼 실제로 미 항공우주국(NASA)은 1995년 우주식량으로 감자를 선택했고,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에 감자를 실어 우주 재배시험에 성공했다. 감자는 다른 농작물에 비해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뿐 아니라 성장속도도 2배에서 4배 정도 빠르다. 이 때문에 옥수수, 밀, 쌀에 이어 영향력 있는 식량 작물로 꼽히지만, 역사적으로는 늘 지배층의 관심에서 벗어나있었다.

1532년 스페인 탐험가 피사로가 안데스 산지에서 캐낸 이 작물을 유럽에 전했을 때 유럽인은 '노예가 먹는 비천한 음식'이라며 무시했다. 또한 울퉁불퉁한 모습에 시체를 땅에 묻듯 묻어야 자라는 감자를 불경한 것으로 여겼으며, 땅속에서 놀라운 속도로 뻗어나가는 감자줄기와 한 줄기에 50개 이상의 열매가 열려있는 모습을 보고 악마가 농간을 부린다고 생각했다. 감자가 나병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돌았고, 먹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럽인들의 입맛에는 못생긴 게 맛도 없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북미대륙에서 건너온 고구마는 단맛을 탐닉한 귀족들이 즐겨 찾아 높은 지위를 누렸다.

다양했으나 실패했던 감자 마케팅

유럽은 감자를 국민들에게 먹이기 위해 정치적으로 꽤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18세기 초 각국에서 갑작스러운 흉년이 들기 시작하자 기근 대책을 위해 왕과 영주들은 농민들에게 감자 심기를 강요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구호품으로 보내온 감자를 만지는 것조차 거부했다.

감자 보급에 온 힘을 기울인 프리드리히 2세

Frederick II

7년간 전쟁을 벌인 후 프로이센(독일)의 프리드리히 왕이 감자 심을 것을 명령해도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 특히 7년 전쟁에 참전했다가 프로이센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감자 전도사'로 불리는 프랑스인 파르망티에는 고국으로 돌아온 후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감자를 보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감자가 메인 요리인 오찬에 유명 인사를 초청하고 왕과 왕비에게 감자꽃을 선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결과는 실패였다. 세르비아에서는 감자를 심지 않으면 곤장을 때리겠다고 농민들을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농민들을 어르고 달래 감자 수확에 성공했음에도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유는 감자를 심고서는 이파리만 먹은 것이다. 감자는 먹을 수 있는 덩어리 부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위가 독성을 띤 독초다. 어디를 먹어야 하는지 알아가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과 돈이 들었고, 당시 의사들을 반강제로 가둬놓고 감자를 부위별로 먹인 인체실험도 전해진다. 이후 대량으로 재배된 감자는 고질적인 기아를 사라지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의 일용할 양식

유럽에서 감자의 보급은 폭발적인 인구 부양력으로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은 감자는 밀보다 두 배나 많은 인구를 먹일 수 있었다. 조리도 비싼 오븐 대신 냄비 하나만 있으면 되었고, 빵을 굽는 것보다 연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 감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차츰 유럽인의 주식으로 떠오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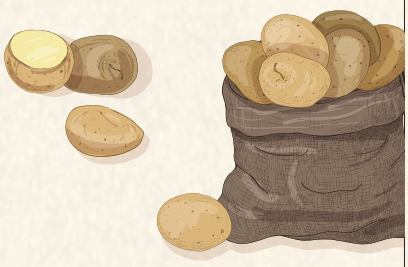
19세기 영국(연합왕국)의 일원이지만 식민지급 대우를 받았던 아일랜드인에게 특히 기적과도 같은 작물이었다. 가난한 그들에게 감자는 주식인 귀리

가 흉작이었을 때 목숨을 연명케 해준 구황식품이었다. 수분과 단백질, 칼륨 등을 비롯해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 비타민 등 감자의 영양성분으로 인해 아일랜드 인구는 4배나 급증했다. 그들은 감자로 역경을 이겨냈지만 큰 아픔을 겪기도 했다. 1845년 감자마름병이 아일랜드에 상륙한 뒤 5년간 감자의 90%가 썩어나가자 100만 명이 넘는 아일랜드인이 굶어죽었고, 1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미국 등으로 이주했다.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든 감자

감자를 이용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나라는 단연 미국이라 할 수 있다. 1613년 남미에서 버뮤다로 전파된 감자는 18세기 초까지 미국 전역에 급속히 퍼져나갔고, 조지 워싱턴은 1767년 자신의 농장에 감자를 심기도 했다. 1차 대전 때 미군은 독일군의 주식량원인 감자밭을 초토화함으로써 전쟁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었다.

미국으로 이주한 아일랜드인들은 대규모 노동자 집단으로 변신해 미국 공업화와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국력을 키운 미국은 영국을 앞지르며 세계 최고의 공업 국가로 발돋움했다.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대표적인 인물로 J.F. 케네디의 조부인 패트릭 케네디를 꼽을 수 있다. 56인의 서명을 담고 있는 미국 독립선언문의 대표자 중 8명이 아일랜드계였으며, 앤드루 잭슨부터 버락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22명의 미국 대통령이 아일랜드계이거나 부분적으로 아일랜드 혈통을 이어받았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유진 오닐, '위대한 개츠비'의 소설가 F. 스콧 피츠제럴드,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와 맥도날드 형제 역시 아일랜드계다.

맥도날드는 프렌치프라이를 만드는 데 연간 140만 톤 이상의 감자를 쓰고 있다.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드는데 주요 역할을 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감자다.

미국을 초대강국으로 만든 데 주요 역할을 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감자다.